

-  **Kaming (GM):** 준비되셨나옹?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넵
-  **Kaming (GM):** 흐무흐무
어떤걸 원하시는거져! 개인플에션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남남
뭐, 저번 세션 이후 다른 npc들이랑 엮이는것?
-  **Kaming (GM):** 쿵코라던가 쿵코라던가 쿵코라던가 군요
그러며는
시작해볼까영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다른 캐릭도 좋지만~
넵
-  **Kaming (GM):** =====
세실리아는 무사히 하얀유령의 정체를 밝히고 사쿠야를 본부에 데려갔습니다. 이후 사쿠야는 그동안 피곤했는지 그만 잠이들었고 자세한 이야기는 그녀가 깬뒤에 듣기로 하고 귀가한상태입니다.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남남)
-  **Kaming (GM):** 어느세 해는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군요
아침부터 바쁘게 일해서 그런지 시간가는줄도 몰랐네요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흐아아앙..."
@여러 모로 피곤하기도 하고...근육이 끽대는군요
@어린 몸으로 산행을 하루에 두번이나 했으니...
@다리가 아플만도...
-  **Kaming (GM):** 뭐 그래도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집까지 천천히 터덜터덜..걷는 중...
-  **Kaming (GM):** 이제 집에가면
폭 쉴 수 있을테니까요
그렇게 집으로 가던중..
눈앞에 익숙한 모습의 뒷태가 보입니다.
-  카미야 쿵코: "...."@기웃기웃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."
@뭘 찾는거야..
-  **Kaming (GM):** 익숙한 뒷태가 세실리아의 집앞에서 기웃거리고있네요.
아직은 초봄 해도 떨어졌고 추워서인지
살짝 떨고있는걸 보면 꽤 오랫동안 기웃거리고 있었던거같습니다.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우리집 앞에서 뭐해?"
@쫓, 작게 허를 차면서 재빠르게 다가가요.
-  카미야 쿵코: "췌 집에 들어오려는 세실리아를 뒤에서 몰래 덮쳐서 귀가있는지 확인하려는거야! 그러니까 조용히 해 세실..리..아?"
@.....?
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."
-  카미야 쿄코: "ㅇ..왔어?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말없이 차게 식은 눈으로 바라봐줘요.
-  카미야 쿄코: "ㄱ..그런눈으로 보지말아줘엇!"
"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면.난...난....엷취!"
@흠쩍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에휴...바보."
@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집 문을 열어요.
-  카미야 쿄코: "ㄸ..츄네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들어가지자."
-  카미야 쿄코: "....!"
"세실리아집에 초대받았어!"
"이거 이제 합법적으로 귀를 확인해볼 수 있는게..."
@중얼중얼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런거 없다고오...."
-  카미야 쿄코: "ㅇ..에엷취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태연하게 거짓말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요.
-  카미야 쿄코: "우우..실례할게"
@덜덜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래서, 무슨 일이야?"
-  카미야 쿄코: "휘휘..."@탄청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작은 원룸이니까, 침대가 바로 보이겠네요.
"진짜냐....!"
-  카미야 쿄코: "하지만! 궁금한걸!"
"분명 내눈으로 똑똑히 봤단말이야"
@세실리아의 머리위를 응시한다
"저곳에..."
"토끼귀가..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지금은 없잔아."
@지이이....
-  카미야 쿄코: "아니야...분명 무슨 속임수를 쓴게 틀림없어"
@지긋...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정말 끈질기구나
"그런게 있으면 세상 사람들 다 동물귀 하고 다니게?"
@하면서 냉장고를 열어요. 뭔가 따듯한 걸 해줄만한게...
- 카미야 쿄코: @슬금슬금

세실리아가 냉장고에 정신이 팔려있는동안
세실리아의 뒤로 이동..
"그러면 직접 확인해볼...뿐이다!"
세실리아의 머리위를 두손으로 붙잡습니다.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야, 뭘?!"

 카미야 쿄코: "보이진 않지만 분명 이쪽에..!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재빠르게 피해봅니다

 카미야 쿄코: "토끼귀..토끼귀를 보자!"
@틀렸어 눈이 맛갔어
"후후후 세~실~리~아 피하면 안되잖아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니, 저기 잠깐?!"

 카미야 쿄코: "후후..이 좁은 원룸에서..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!"
@카아악!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공공거리며 도망가려 하지만...지치고 연약한 몸은 쉽게 따라주질 않네요
@이내 구석으로 몰아붙여집니다

 카미야 쿄코: "토끼귀 토끼귀를 보자"@등짝 등짝을 보자
하악 하악
서서히 다가갑니다.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으, 으, 탈출구를 찾아 바둥바둥

 카미야 쿄코: "이제 도망칠곳은 없어!"
@구석에 몰린 세실리아를 붙잡아 안습니다.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흐음, 저, 저기이이...!?"
@본능적인 공포에 몸이 바르르 떨러오네요

 카미야 쿄코: "후후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되 확인 확인만 할뿐이야"@눈이 무서워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네 눈을 보고 그런 말을..."

 카미야 쿄코: 몸으로 세실리아를 구속(?)한채 서서리 손을 들어 머리쪽으로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바둥바둥, 저항해보지만...12살의 육체는 연약하기 그지 없어서, 고등학생에게 저항하
기엔 무리.
@이내 보이지만 양게 된 귀에 손이 닿겠네요

 카미야 쿄코: (뭐 사실 카미가카리가 진심을 내면 떨쳐내는것정도야..)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그럼 재미없정)

 카미야 쿄코: "...뭔가..있어 부드러운.."
@이내 만지작
@만지작 만지작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까, 음...힃, 꼬흐...?"

 카미야 쿄코: "오옷..이감촉은.. 진짜 토끼귀인가 신기해.. 부드러워!"
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공공거리는 신음을 간간히 흘리면서 몸이 바들바들....
-  카미야 쿄코 : @만지작 만지작 만지작 만지작 만지작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놔, 쥐어어어....흐으으....우우..."
-  카미야 쿄코 : @하지만 쿄코의 눈에 세실리아의 반응은 들어오지않는다
"정말 정말 토끼귀야!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바들, 바들....부르르....
-  카미야 쿄코 : @만지자아아악!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싫, 하으으...!?"
@꾸우욱 몸이 굳어져 움찔거리다가 추우욱 늘어져요
-  카미야 쿄코 : "헷...! 나는 대체 무엇을.."
@한참 만지작거리던 쿄코도 어느새 정신을 차렸는지 세실리아를 바라봅니다.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으, 으으...멍, 청아아....!"
-  카미야 쿄코 : ".....미안!!!"
@구속을 풀고 도게자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잔뜩 화나서 소리치고는 그대로 이불로 몸을 돌돌 말아버리죠
-  카미야 쿄코 : "그만..기세를 타버렸습니다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멋대로, 멋대로...정마아아알~!"
-  카미야 쿄코 : @도게자인체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민감한....데에에..." @웅얼웅얼....
-  카미야 쿄코 : "응? 뭐라구?"
@살짝 고개를 듭니다.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잠시 노려보다가 이불 속으로 고개를 넣어버려요
@베개를 집어던진다
-  카미야 쿄코 : "앗! 미안해 용서해..부객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다신 집에 데려올까보냐아..."
-  카미야 쿄코 : "하지만 역시 있잖아! 귀같은 무언가가! 토끼귀 토끼귀지! 그 감촉 그 부드러움 토끼귀가 분명해"
@다시 흥분하기 시작한다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착각이라고오...."
@진심으로 기억소거를 해야하나 고민하기 시작...
-  카미야 쿄코 : "착각...? 아니야 내손에 남아있는 이 부드러움과 감촉은 착각같은게 아니야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래도, 카미가카리로써는 냉정하기 그지 없지만...
@사람으로써는 분명 선인이기에, 곧 그런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립니다.
-  카미야 쿄코 : "하지만 신기하네.."
"분명 눈에는 안보이는데"

@빠안히

세실리아를 쳐다봅니다.

세실리아와 자신의 손을 번갈아보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세상엔 모르는게 나은 게 있는 법이야."

@중얼중얼.



카미야 쿄코: "우음..하지만 다시 보고싶은걸 이 두눈으로"

"감촉만으로는..역시 부족해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돌이킬 수 없는 일에 휘말릴지도 모르는데?"



카미야 쿄코: "돌이킬 수 없는일?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눈만 내놓고 지긋이 바라보네요.



카미야 쿄코: @가웃

"설마 출생의 비밀이라던..가!"@두둥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말 그대로.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."



카미야 쿄코: "응? 괜찮아 괜찮아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런 근거없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거냐!"



카미야 쿄코: "이제 더 잃어버릴것도 없거든..">@매우작게

"그야 나는 악운에 강하니까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재빠르게 이불을 던지려다가, 그대로 멈춰요.



카미야 쿄코: @웃음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어딴어."



카미야 쿄코: "아 들어버렸나"

@굵적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자세하게 설명해 주면...보일 지도 모르지?"

@침대에 일어나 앉아요.



카미야 쿄코: "들어도..재미없을텐데?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어린 아이의 몸인데, 풍기는 분위기는...고난길을 걸어온 여성의 그것이군요.

"상관 없어."



카미야 쿄코: "...그럼 대신 귀 다시 만지게 해줘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....하아....

"알았으니까 먼저 말해봐."



카미야 쿄코: "에..정말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텐데..">@일단 자리에 풀썩 앉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잠시!)



카미야 쿄코: (...!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와씨요)

@슬쩍 앉기 쉽게 옆으로 비켜줘요.



카미야 쿄코: 그럼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죠
"실은 이레보여도 나 옛날에는 꽤 잘나가는 집의 아가씨였어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조용히 들으면서 무릎을 올려 끌어안고 발가락을 꼼지락 꼼지락..



카미야 쿄코: "무엇하나 부족한거 없이 자라왔지 부모님의 사랑도 먹을것도 옷도 장난감도.."
"그런데 3년전에 집에 불이났어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불...?"



카미야 쿄코: "응 불.. 아직도 기억나 커다란 불이였어. 불을 끄려고 부모님들이 안간힘 쓰던것도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고개를 천천히 돌려 차갑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...



카미야 쿄코: "하지만 불은 사그라들지않고 내 집과 부모님을 모두 나에게서 빼앗아 가버렸지.."
"운 좋게 살아남은건 거기서 나뿐이였어"
"말했지? 악운에 강하다는거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악운...이네에."



카미야 쿄코: "그런데 웃긴건...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평소에 보지도 아니 처음보는 사
람들까지 나에게 다가오는거 있지"
"처음에는 고마웠어 모든걸 잃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거든"
"그래서 그사람들이 하라는데로 다 했어"
"결국...부모님이 남겨준 유산까지 모두 잃어버렸어 나 바보지?"
@헤헷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흐으응...잠시 지켜보다가, 천천히 무릎을 다시 내려서 바르게 앉아요.



카미야 쿄코: "그 뒤로 그때 내게 웃어줬던 모든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렸어"
"그래서 나는 내 모든걸 빼앗아간 그 화제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이곳저곳 수소만해봤는데"
"결국 돌아오는건 원인 불명이라는 말 뿐이였어... 경찰도 소방관도.."
"그래서 나 혼자서 조사하기 시작했어."
"그렇게 조사하고 조사하다보니까 남은건..오컬트쪽밖에 없더라구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오컬트..."
@'이쪽' 이야기 인가...하는 생각이 슬며시 스쳐지나가네요.



카미야 쿄코: "그렇게 오컬트에 폭~ 빠지게되버렸는데... 학원에서는 결국 이상한 애 취급을 받게되고 친구들도
모두 떠났어"
"남은건 내 몸뿐이야."
"미안 재미없는 이야기 너무 오래했지?"
@헤헤 하고 어색하게 웃네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글쎄. 왜 재미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."



카미야 쿄코: "에..그치만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지긋이 대답을 기다려요



카미야 쿄코: "보통..사람들이랑은 다르잖아? 나 부모님도 없고 오컬트에 심취한 여고생이고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그래서?"
@반문.



카미야 쿄코: "그래서..라니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지금 네가 처한 현실이 네 과거가 재미없는 이야기인가, 의 이유는 아니잖아?"
"그리고, 사람들은 다 네게서 떠나갔다 라고 했지."
@자신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, 말을 이으면서...
@자신의 목으로 손을 뺀어서...
@인외의 상징인 토끼귀를 보이지 않게 해주던 부적 목걸이를 벗어요.



카미야 쿄코: (사망)
"...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난 여기 있는 걸."
"앞으로도 있을 거고."



카미야 쿄코: "ㅇ...우우웃...비겁해..비겁해 세실리아 이런거"@글썽글썽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비겁한건 너겠지..."
"정말. 어떻게 알아챈거야. 절대 들키지 않을 속셈이었는데..."
@천천히 손을 내밀어서 어깨에 둘러줍니다.



카미야 쿄코: @홀쩍
"헤헤...나..눈썰미는 좋다구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...바보가."



카미야 쿄코: "고마워. 앞으로 잘부탁해 세실리아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잠시 굳어졌다가, 그대로 쓴웃음을 지으면서...
"사람이 아니라 미안하네."
@토닥 토닥, 천천히 어깨를 두드려줘요.



카미야 쿄코: "...Zzzz"



Kaming (GM): 그러면 세실리아 귓가에
작게 콧소리가 들립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.....야, 집에 가서 자..."
@들리지 않게 작게 중얼거리고는...그대로 침대에 눕혀주고...



카미야 쿄코: "음냐..음냐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그대로 곁에 몸을 눕히곤, 이불을 덮어요.
"좁다고...둘이 자기엔..."
@좁으니, 바싹 몸을 붙이고....



카미야 쿄코: "따듯..해"
@음냐음냐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그대로 살짝 쿄코의 품 안으로 파고든 채...잠시 그녀의 따스함을 즐기다가...
@그대로 꾸벅, 꾸벅....쿠우....



Kaming (GM): 그때 세실리아의 토끼귀가 반응합니다.
주변이 반전됩니다.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...우...?"



Kaming (GM): 이느낌은 영력결계가 풀렸을때의 느낌

???: "여기에 숨어계셨습니까"

"세실리아 슈발츠발트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!"

@그럼 잠이 확 깨서, 이불을 획 젖히고 바로 폴짝 일어나요.



Kaming (GM): 그러면 스으옥 하고

한 남성이

나타납니다.



샤를 다레스: "드디어 찾았습니다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...누구지...아는 사람?



Kaming (GM): 성당 기사단에..당신과 같은 팀의 리더였던 사람입니다.



샤를 다레스: "설마 저를 잊었다고는 하지않겠지요?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당신이 왜 여기에..."

"죽었을...텐데?"

@살짝 식은땀이 배어나오는군요.

@온몸이 초긴장 상태.



샤를 다레스: "죽었다..? 하지만 저는 여기에 이렇게 서있지않습니까"

@웃음

"다른 팀원도 다들 잘 있답니다. 당신은..조금 변했군요"

@흥미롭게 바라봅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건 다행이네에. 다들 무사하다니."

@분명...죽었을 터, 인데...

"나는...글쎄에."



샤를 다레스: "네 당신을 찾느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."

"자 돌아가도록 하죠."

@손을 내밉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까득, 이를 깨물어요.

"어디로 돌아가? 가서 무엇을?"



샤를 다레스: "물론 팀이지요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차가운 눈으로 노려보고...



샤를 다레스: "다들 모두 세실리아를 기다리고있답니다."

@웃는표정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처분하려고?"

@피식, 마주 웃음을 띄워요.



샤를 다레스: "처분..? 글쎄요 저희는 아직 임무를 마치지 못했잖아요? 물론 갑자기 사라지셔서 놀랐습니까
ㄴ"

(다만)

"처분할정도는 아니지요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.뭐?"

 샤를 다레스: "자 갑시다. 모두들 기다려요"

 Kaming (GM): 뭔가 이상하군요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러네요. 대화가 어긋납니다.
"당신, 누구야."

 샤를 다레스: "이제와서 누구냐니.. 접니다. 샤를 다레스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니, 뭐야, 라고 묻는게 더 맞을까?"

 샤를 다레스: "일본의 악마퇴치팀장 샤를 다레스입니다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는 죽었어."

 샤를 다레스: "죽었다니.. 자 봐요 이렇게 저는 살아있답니다."

@팔을 펼쳐보입니다.

겉보기엔...당신이 아는 사람이지만..

"하아..이거 큰일이군요. 오랫동안 봤는데 세실리아씨의 기억에 무슨 문제가.."

@절레절레

"그리고..저분은 누구시지요?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.....!

 샤를 다레스: 샤를의 시선에는

 카미야 쿄코: "음냐음냐..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재빠르게 그 시선 앞에 끼어들죠.

 샤를 다레스: "혹시 감싸는겁니까?"

@눈매가 무서워지는군요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렇다면, 어쩔건데?"

 샤를 다레스: "악.마를 감싸다니..제정신인가요? 비키세요. 세실리아 슈발츠발트" @지팡이를 쿄코에게 겨눴다.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악마라니, 무슨..."

@사선 앞을 가로막아 서요.

 샤를 다레스: "...무슨생각이시죠"

"성당기사단의 일원이자 악마 퇴치팀의 일원인 당신이 악마를 감싸다니.."

"단순한 처벌로는 끝나지 않을일입니다.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악마는...악마는 너희겠지!"

 샤를 다레스: "지금이라도 비키세요. 그럼 이번일은 덮어주지요"

"이런..정말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겁니까.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대로 강한 적의를 풍기면서, 자신도 무기를 꺼내 샤를을 겨눴요.

 샤를 다레스: "....."

@잠시 세실리아를 노려보다가
 "알겠습니다. 지금은 물러나도록 하지요"
 @스욕 지팡이를 거둡니다.
 "오랫만의 만남이 이렇게 될줄은...정말 안타깝군요"
 @슬픈표정



샤를 다레스: "대체 악마에게 무슨짓을 당했기에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아무 것도 당하지 않았어. 그리고, 사람의 탈을 쓴 악마는 너희들이야."



샤를 다레스: "하아...더이상은 대화가 통할꺼같지않군요"
 "하지만 걱정마세요.세실리아"
 "지금의 저의힘으로는 당신을 되돌릴 수 없지만"
 "그.분 이라면 분명 방법이 있을겁니다."
 "이제 어디계신지 알았으니까...다음에는 다른 팀원들과 같이 마중나오도록 하지요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그거 참 기대되네."



샤를 다레스: "그럼 이만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반어법.



샤를 다레스: @정중히 인사를 하며..
 @스르르륵
 나타났던것과 같이 사라집니다.
 그리고 세계는 다시 반전합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그가 가버리면, 긴장이 빠져서 스르륵 늘어져서 침대 말 바닥에 털썩 주저 앉아요.



Kaming (GM): 샤를 다레스
 당신과 함께
 일본에 와 악마를 퇴치를 담당하던 팀의 팀장이었죠
 (악마퇴치를)
 그리고 분명 임무도중에 전부 전멸했을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...전부 죽었는데...어떻게..."



Kaming (GM): 목소리 외형 말투까지 전부 그였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기억은 없었어. 유령...?"
 "아냐, 유령이라고 치기엔 너무..."
 @혼자서 중얼중얼...여러 가설들이 스쳐지나가고, 부정당합니다.
 "대체....뭐야....."
 @천천히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중얼중얼.



Kaming (GM): 심지어
 쿄코보고 악마라고 했었죠
 성당기사단의 악마는 분명 아라미타마일터..
 하지만 쿄코는 분명 일반인입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힐끔, 그녀를 바라보고는...
 @고개를 젓는군요.

"뭔가 있어. 노리는 건..."



Kaming (GM): 게다가..

아직 자신들의 임무가 끝나지않았다고 했었죠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나, 인가...

"허튼 짓을..."



Kaming (GM): 임무란 악마퇴치

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



카미야 쿄코: "후헤헤..토끼귀..헤헤"

@음냐음냐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....

@잠시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다가...

@다시 조심스레 품 안으로 파고 들어서 잠을 청합니다



Kaming (GM): 그녀의 품은..

따듯했습니다

=====

일단 오늘은 여기까지!

떡밥과 NPC의 과거사와 토끼귀를 다뤄봤습니다.